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은 식물원을 방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학자 ○○○입니다. 오늘 우리 식물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을 먼저 보실까요? (*Hibiscus syriacus* L.[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엘]이라 적힌 자료를 보여 주며)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 후) 대답하기 쉽지 않죠? 정답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궁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궁화가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식물에 학명(學名)을 붙이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만약 특정 식물을 지칭하는 표준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술적으로 식물 분류 체계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식물학회에서는 식물명명규약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공인된 단 하나의 이름인 학명을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Hibiscus syriacus* L.'은 바로 무궁화의 학명인 것이죠.

학명은 흔히 '이명법(二名法)'으로 짓는데, 이는 두 이름을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두 이름은 '속명'과 '종소명'인데, '*Hibiscus*'는 속명에, '*syriacus*'는 종소명에 해당합니다. 속명과 종소명에는 특정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속명에는 식물의 생태적·형태적 특성 등이, 종소명에는 식물의 자생지나 처음 발견된 곳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Hibiscus*'는 '아욱과 식물'을 뜻하는데, '이집트의 여신 히비스를 닮은 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syriacus*'는 '시리아'라는 나라 이름을 뜻하죠. 그러니까 무궁화의 학명은, '이집트의 여신 히비스를 닮은, 시리아에서 발견한 꽃'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속명과 종소명은 라틴어로 기울여 쓰는 것이 원칙인데, 속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종소명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학명의 끝에 있는 'L.'은 명명자로, 해당 식물에 이름을 부여한 사람에게서 따옵니다. 예를 들어, 무궁화의 학명에서 'L.'은 린네(Linné)라는 식물학자의 이름을 약자로 표기한 것이죠. 이때 명명자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표기를 한다면, 기울여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무궁화를 예로 들어 식물에 학명을 붙이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학명이 궁금한 식물이 있다면, 인터넷 검색으로 그 의미를 찾아보면서 관람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식물을 감상하는 재미가 더해질 겁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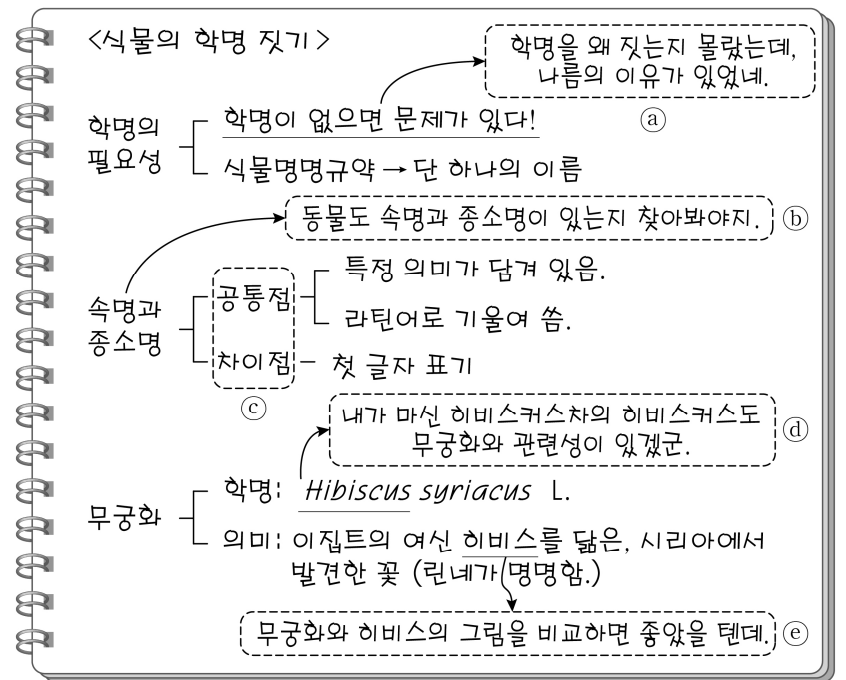
1.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연을 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강연을 시작하고 있다.
- ②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강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청중의 요청에 따라 강연 내용의 수준을 조정하고 있다.
- ④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하며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 ⑤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언급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강연을 준비하기 위한 청중 분석과 강연 계획이다. 강연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청중 분석	강연 계획
① 식물에 관심이 적을 것임.	→ 청중에게 익숙한 소재를 예로 들어야지.
② 강연의 목적을 궁금해 할 것임.	→ 식물에 학명을 붙이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 강연의 목적임을 밝혀야지.
③ 이명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할 것임.	→ 이명법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지.
④ 학명과 명명자 사이의 관계를 모를 것임.	→ 학명에 명명자 이름을 표기하는 기준을 언급해야지.
⑤ 라틴어 발음에 익숙하지 않을 것임.	→ 라틴어로 표기된 학명에 우리말 발음을 덧붙여 시각 자료로 제시해야지.

3. 다음은 학생이 강연을 들으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학명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아,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며 들었겠군.
- ② ②: 강연 이후 조사할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더 알고 싶은 점을 떠올리며 들었겠군.
- ③ ③: 강연 내용의 일부를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으로 보아, 세부 정보들의 관계를 확인하며 들었겠군.
- ④ ④: 히비스쿠스차와 무궁화의 연관성을 추측한 것으로 보아, 강연 내용을 자기 경험과 관련지으며 들었겠군.
- ⑤ ⑤: 강연 자료의 준비 부족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강연 내용의 신뢰성 여부를 따지며 들었겠군.

[4 ~ 7] (가)는 교내 신문의 학생 기사문이고, (나)는 (가)의 보도 이후에 열린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자치의 꽃, 학생자치실이 달라진다

- 학생 회의를 통해 학생자치실 활용 방안 논의 예정 -

우리 학교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교육청 지원으로 학생 참여형 학생자치실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학생 회의를 열어 학생자치실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학생회실이라는 공간이 있었지만, 학생회에서 회의를 할 때만 사용하여 학생회실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공간이 협소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회 행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학교는 기존 학생회실과 그 옆에 비어 있는 교실을 합쳐서 학생자치실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위지만 정해진 상태로, 학생자치실의 활용 방안에 대해 학생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6월 9일에 학생회실에서 열린다. 6월 2일까지 학교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자치실의 활용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회의를 참관하려는 학생은 학생회에서 별도 신청을 받는다. 우리가 만들어갈 공간, 학생자치실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

학생회장: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생자치실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학생 1: ㉠ 사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용 대상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학생 2: 맞습니다. ㉡ 현재 학생회 임원으로 한정된 사용 대상을 학급, 동아리, 소모임 단위로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학생 1: 학생회 임원이 아닌 학생들이 회의나 모임을 할 때도 사용하면 좋겠네요.

학생 3: 네, 하지만 학생들이 사용하려는 기간이 겹치면, 학생자치실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학생회장: 네, 학교 행사나 수행평가 시기에 사용하려는 학생들이 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학생 1: ㉢ 학생자치실 사용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학생 3: 동의합니다. 학생회에서 예약 관리 담당자를 정하여 운영합시다.

학생회장: 네, 좋습니다. 학생자치실을 학생들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하되 예약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활용 방안은 없을까요? [A]

학생 2: 학생자치실에서 학생회 행사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학생 3: 좋은 의견입니다. 학생회 행사 장소가 자주 바뀌다 보니 행사를 준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학생들이 장소를 잘못 찾아가는 혼란도 있었습니다.

학생 2: 맞습니다. 나눔 마켓, 교복 물려주기, 우산 대여와 같은 학생회 활동을 모두 학생자치실에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학생회장: 네, 학생자치실을 학생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학생 3: ㉣ 그런데 학생자치실에서 회의나 모임, 학생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학생회장: 네, 활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공간 구성도 함께 논의해야겠네요.

학생 1: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2: 그렇다면 우리 학교 동아리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요?

학생회장: 좋은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아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B]

학생 2: ㉤ 우리 학교에는 건축 디자인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 학생들에게 활용 방안이 맞는 공간 구성 방향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학생 1: 해당 동아리 학생들은 공간 디자인 공모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니, 이번 학생자치실 공간 구성에 대해 의견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생회장: 네, 그럼 동아리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건축 디자인 동아리 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생자치실 공간 구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가)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글에 반영된 것만을 고른 것은?

- ㄱ. 학생자치실 구축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을 제시해야겠군.
- ㄴ. 학생자치실 활용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는 주체를 밝혀야겠군.
- ㄷ. 학생자치실을 구축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겠군.
- ㄹ. 학생자치실 활용과 관련된 회의의 결과를 언급하며 후속 회의의 주제를 알려야겠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나)의 [A], [B]에 드러난 ‘학생회장’의 말하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B]와 달리 상대의 발언 내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B]와 달리 상대의 발언 내용을 되물으며 발언의 정확한 의도를 확인하고 있다.
- ③ [B]에서는 [A]와 달리 상대의 발언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④ [B]에서는 [A]와 달리 상대의 발언 취지를 확인하며 논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상대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6. (가)와 (나)의 맥락을 고려할 때, (가)를 읽고 (나)를 참관한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을 들으니, 회의에서 언급한 조사 결과는 학교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취합한 것이겠군.
- ② ㉡을 들으니, 평소 학생회실을 학생회 임원만 이용해서 학생회실에 대해 학생들이 잘 몰랐겠군.
- ③ ㉢을 들으니, 학생자치실 사용을 예약제로 운영하자는 것은 학생자치실의 위치를 고려한 의견이겠군.
- ④ ㉣을 들으니, 학생자치실의 공간 구성 방안은 회의 전에는 계획되지 않은 내용이겠군.
- ⑤ ㉤을 들으니, 학생자치실 공간 구성에 동아리 학생들의 도움을 받자는 것은 학생 참여를 지향하는 사업 방향에 맞는 제안이겠군.

7. 다음은 (나) 이후 작성한 기사문의 일부이다. 기사문을 작성할 때 독자를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회 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학생자치실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 결과, 학생자치실은 학생들의 회의와 모임, 학생회 주최 행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학생회 측은 활용 방안에 따른 공간 구성에 대해 도움을 얻고자 회의 이후 건축 디자인 동아리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고, 동아리 학생들은 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접이식 가벽 설치, 이동형 수납장 배치 등을 제안하였다.

회의를 참관한 ○○○ 학생은 “학생자치실을 만드는 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좋았어요. 회의에서 열의도 느껴졌어요.”라고 말했다.

6월 20일에 열릴 회의에서는 학생회와 사업 담당 선생님이 함께 공간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① 다음 회의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동아리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필자의 의견을 통해 학생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⑤ 기사문에 인용된 발언을 통해 지난 회의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

[8~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목적: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위한 가치 소비 소개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나) 학생의 초고

최근 ‘가치 소비’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가치 소비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치 소비라는 말을 들어본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치 소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학생은 많지 않다. 이에 가치 소비의 개념과 실천 사례, 그 의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가치 소비란 소비자가 본인의 가치 판단을 우선시하여 소비하는 방식을 말한다. 소비자 본인이 가치를 부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과감하게 소비하되, 그렇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저렴하거나 실속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가치 소비에는 타인이 부러워할 만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는 소비도 있지만, 다소 비싸더라도 사회적·윤리적 의미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비도 있다. 소비가 기부로 연결되는 제품이나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후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사회적·윤리적 의미를 추구하는 가치 소비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가치 소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미닝 아웃(meaning out)’이 있다. 미닝 아웃은 ‘신념’을 뜻하는 ‘미닝(meaning)’과 ‘벽장 속에서 나오다’라는 뜻을 지닌 ‘커밍 아웃(coming out)’을 결합한 단어로, 소비 행위 등을 통해 개인의 사회적 신념이나 가치관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소비를 한 후 이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신념을 지니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미닝 아웃의 하나이다. 또한 선행을 실천한 가게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부도덕한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동참에 영향을 주는 형태도 있다.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구매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기업에서도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바람직한 가치 소비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A]

8. 초고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용어를 분석하여 독자가 그 의미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겠어.
- ② 가치 소비를 접한 경험을 언급하여 독자가 가치 소비에 흥미를 느끼도록 해야겠어.
- ③ 미닝 아웃의 여러 형태를 제시하여 독자가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어.
- ④ 가치 소비에 대해 다룬 내용을 제시하여 독자가 뒤에 이어질 내용을 추측하도록 해야겠어.
- ⑤ 가치 소비의 의의를 언급하여 독자가 가치 소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겠어.

9.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보완하고자 한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료 1]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

가치소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2020년	9.3	14.2	76.5
2022년	21.5	46.7	31.8

(단위: %)

들어본 적 있고 잘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자료 2] 신문 기사

다른 제품에 비해 비싸더라도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에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을 줄이거나 포장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기업 역시 증가하고 있다. 건강한 지구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자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자료 3] 전문가 인터뷰

“미닝 아웃으로 판매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거나 불매 운동이 권유가 아닌 강요로 변질된다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닝 아웃은 윤리적 소비와 연결되어 사회, 환경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소비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① [자료 1]을 활용하여, 가치 소비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지도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야겠군.
- ② [자료 2]를 활용하여,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보충해야겠군.
- ③ [자료 3]을 활용하여, 미닝 아웃으로 불매 의사를 표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다루어야겠군.
- ④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을 소비자와 기업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설명해야겠군.
- ⑤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여, 가치 소비가 바람직하게 전개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언급해야겠군.

10. <조건>에 따라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글의 흐름을 고려할 것.
- 설의법과 비유법을 모두 사용할 것.

- ①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듯이 내가 실천한 올바른 가치 소비가 사회의 큰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 ② 당신의 소비가 나를 위한 사치인지 남을 위한 가치인지 생각하며 현명하게 소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 ③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소비자들의 착한 가치 소비가 계속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④ 내가 소비한 물건을 마음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 ⑤ 나의 소비가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바람직한 가치 소비를 하자.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품사’는 공통된 성질이 있는 단어끼리 묶어서 분류해 놓은 갈래를 뜻하고,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를 뜻한다. 관형사는 체언인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서 해당 체언을 꾸며 주는 품사이고,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므로, 서로 문법 단위가 다르다. 그런데 관형사나 관형어는 이름과 그 기능이 서로 유사하여,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관형사는 단어의 성질 자체가 체언의 수식에 있고,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관형어는 관형사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관형사 이외에도 체언과 관형격 조사의 결합, 용언의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체언 자체로도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가) 현 집이지만 나는 고향 집이 정겹다.
 (나) 할아버지의 집을 고쳐서 예쁜 집으로 만들었다.

(가)의 ‘현’은 ‘집’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이때 ‘현’은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며, ‘현’이라는 고정된 형태로만 쓰인다. 즉 ‘현 책, 현 구두’와 같이 관형사는 언제나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만 쓰인다. 또한 ‘고향’은 명사이지만, 뒤에 오는 체언 ‘집’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체언이 나란히 올 경우 앞의 체언은 뒤의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나)의 ‘할아버지’는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여 ‘집’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다. 또한 ‘예쁜’은 형용사인데, 어간 ‘예쁘-’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집’을 꾸미는 관형어로 쓰인다. 마찬가지로 ‘살던 집’, ‘구경하는 집’처럼 동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

11.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형사는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② 관형사와 관형어는 모두 체언을 꾸며 주는군.
- ③ 관형어가 항상 관형사를 통해 실현되는 것은 아니군.
- ④ 두 명사가 나란히 올 때 앞 명사는 관형사가 될 수 있군.
- ⑤ 형용사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더라도 관형사가 될 수 없군.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문장을 탐구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ㄱ. 새 가구는 어머니의 자랑거리이다.
 ㄴ. 모든 아이들이 달리는 사자를 구경했다.
 ㄷ. 그들은 오랫동안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다.
 ㄹ. 우리 가족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ㅁ. 대부분의 학생이 여름 바다를 간절하게 그리워했다.

문장	탐구 정리 내용		
	관형어 개수	관형어	품사
① ㄱ	1	어머니의	명사 + 조사
② ㄴ	2	모든	관형사
		달리는	동사
③ ㄷ	1	친한	관형사
④ ㄹ	1	가던	동사
⑤ ㅁ	2	여름	명사
		간절하게	형용사

13. <보기>는 음운 변동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선생님 : 음운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있습니다. 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때 음운 개수가 변하기도 하는데요. 제시된 단어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있는 대로 모두 찾고 음운 개수의 변화를 정리해 볼까요?

단어	음운 변동 종류	음운 개수의 변화
① 국밥[국빡]	첨가	하나가 늘어남.
② 뚫는[뚫른]	교체, 탈락	하나가 줄어듦.
③ 막내[망내]	교체, 축약	하나가 줄어듦.
④ 물약[물략]	첨가	하나가 늘어남.
⑤ 밝힌[발핀]	축약	변화 없음.

14.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늘다 ㉠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고 짧다.
 ㉡ 소리의 울림이 보통에 미치지 못하고 약하다.

굵다 ㉠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를 넘어 길다.
 ㉡ 나뭇가지가 굵다.
 ㉢ 밤, 대추, 알 따위가 보통의 것보다 부피가 크다.

두껍다 ㉠ 두께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
 ㉡ 두꺼운 종이
 ㉢ 층을 이루는 사물의 높이나 집단의 규모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

- ① ‘가늘다’, ‘굵다’, ‘두껍다’는 모두 다의어이다.
- ② ‘가늘다 ㉡’의 용례로 ‘열차의 기적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③ ‘두껍다 ㉡’의 용례로 ‘그 책은 수요층이 두껍다.’를 들 수 있다.
- ④ ‘굵다 ㉠’의 용례에서 ‘굵다’를 ‘가늘다’로 바꾸면 ‘가늘다 ㉠’의 용례가 될 수 있다.
- ⑤ ‘굵다 ㉠’과 ‘두껍다 ㉠’의 의미에 의하면 ‘굵은 손가락’은 ‘두꺼운 손가락’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5. <보기>의 ㉠~㉣에 나타나는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중세 국어] 자내 날 ㉠ 향히 ㅁ으믈 었디 가지며 나는 자내 향히 ㅁ으믈 었디 가지던고 미양 자내드려 ㉡ 내 닐오디 혼디 누어서 이 보소 남도 우리ㄴ티 서로 예엿쎄 녀겨 사랑 흐리 남도 우리 ㉢ ㄱ튼가 흐야 자내드려 ㉣ 니르더니 었디 그런 이를 ㉤ 싹각디 아녀 나를 브리고 문져 가시논고
 - 이응태 부인이 쓴 언간에서 -

[현대어 풀이] 당신이 나를 향하여 마음을 어찌 가지며, 나는 당신을 향하여 마음을 어찌 가지던가? 늘 당신에게 내가 이르되, 함께 누워서, “이 보소, 남도 우리같이 서로 예쁘게 여겨서 사랑하리? 남도 우리 같은가?” 하여 당신에게 이르더니, 어찌 그런 일을 생각지 아니하여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

- ① ㉠에서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모음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에서 주격조사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에서 이어적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에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 ⑤ ㉤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헌 누더기 입은 무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 자식 등에 업고 자란 자식 손에 끌고
울면서 눈물 씻고 얻어지며 오는 모양
차마 보지 못할너라 나직이 묻는 말씀
어디로서 좇아오며 어디로 가려는고
주려들 가는 사람인가 가게 되면 얻어 먹나
아무 데도 한가지라 날 따라 도로 가면
자네 원님 가서 보고 **안접(安接)***하게 하여줍세
겨우겨우 대답하되 우리 곳은 당진(唐津)이라
여러 해 흉년들어 살길이 없는 중에
도망한 자 친구환(新舊還)*을 있는 자에 물리니
제 것도 못 바치며 남의 곡식 어찌할꼬
못 바치면 매 맞으니 매 맞고 더욱 살까
정처 없이 가게 되면 죽을 줄 알건마는
아니 가고 어찌하리 굶고 맞고 죽을 지경
차라리 구렁*에나 얽려 없이 못치이면
도리어 편할지라 이런 고로 가노메라
급히 급히 넘어가자 이 백성들 살려보세
둘째 령(嶺)을 올라서서 고을 지경 바라보니
열 집에 일곱 집은 행그러니 비었더라
읍중(邑中)으로 들어가니 남은 집의 ㉠ **곡성(哭聲)**이라
전년의 이천여 호 금년의 칠백 호라
미혹한 유부사(柳府使)*와 답답한 이도호(李都護)*는
국곡(國穀)도 중커니와 인명인들 아니 볼까
백성 없는 곡식 바다 그 무엇에 쓰려하노
출도한 후 전령하여 니징(里徵)* 족징(族徵)* 없이 하고
허두(虛頭)잡이 호역들을 태반이나 덜어 주고
친구환 칠만 석은 탕감하자 아뢰겠네

- 구강, 「북새곡(北塞曲)」 -

- * 안접: 편안히 마음을 먹고 머물러 삶.
- * 친구환: 올해 세금과 지난해 세금.
- * 구렁: 무덤.
- * 부사, 도호: 조선시대 관직의 이름.
- * 니징, 족징: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나 일가 족에게 대신 물리던 일.

(나)

십 년 종사(從仕) 후에 고향으로 도라오니
산천의구(山川依舊)하되 인사(人事)는 달나세라
아마다 세간존몰(世間存沒)*을 못내 슬허 하노라 <1수>

강산아 나 왔노라 백구(白鷗)야 반갑고야
청풍명월(淸風明月)도 기다려 줄 알건마는
성은(聖恩)이 하 지중(至重)하시니 자연지체(自然遲滯)*하여라 <2수>

산화(山花)는 물의 띄고 물시는 산의 운다
일신이 한가하야 산수간(山水間)의 누어서니
세상의 어즈러운 기별을 나는 몰라 하노라 <4수>

거문고 빗기 들고 산수(山水)을 회롱하니
청풍(淸風)은 건듯 불고 명월(明月)도 도라 온다
흐물며 유신(有信)흔 물여기*는 오명가명 하느니 <5수>

산수(山水)의 병(病)이 되고 금가(琴歌)*의 벽(癖)이 이서
산수(山水) 조흔 곳의 ㉡ **금가(琴歌)**로 노니노라
두어라 초로인생(草露人生)*이 아이 놀고 어이 하라 <8수>
- 신교, 「귀산음(歸山吟)」 -

- * 세간존몰: 세상의 존속과 멸망.
- * 자연지체: 저질로 늦어 머뭇거림.
- * 물여기: 갈매기.
- * 금가: 거문고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 * 초로인생: 풀 끝에 달린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

(다)

기다리는 옛장수는 오지 않았다. 벌써 보름째 나타나지 않는
옛장수의 리어카를 기다리느라 조바심이 난 아이들은 오리처럼
목이 길어졌다. 마당에서 자치기를 하다가도 담 너머로 슬쩍슬쩍
눈을 돌렸고, 풀을 베다가도 동구 밖을 자주 힐끔거렸다. 여름날,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노라면 꿈속에서도 옛장수의 가위
소리가 귓전을 울리곤 했다.

옛장수의 그 넓적한 가위는 옛을 알맞게 나누는 도구인 동시
에 그 소리로 옛장수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훌륭한 홍보 수단이
었다. 노련한 옛장수일수록 옛가위에 신명 난 장단을 넣어 아이
들의 귀를 길쭉하게 만들었다.

고요한 마을에 옛장수의 ㉢ **가위** 소리가 멀리서 찰칵거리기 시
작하면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위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뛰었다. 한쪽 발에만 신을 켜어 신고 뛰어가는 아이도 있었다.
신발을 손에 들고 뛰는 아이도 있었다. 아예 맨발로 뛰는 아이도
있었다.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가랑이가 찢어지는 줄
도 모르고 아이들은 뛰었다.

옛으로 바꿔 먹을 만한 물건이 없나, 하고 아이들은 이미 마루
밑이며 헛간을 수도 없이 뒤진 터였다. 아이들은 고철이나 함석
조각을 챙겨 들고 달렸다. 칠성사이다를 마시고 남은 빈 병을
쥐고 달렸다. 뒤축이 닳아 구멍이 난 흰 고무신을 품고 달렸다.
1원짜리 동전 하나를 달랑 손에 움켜쥐고 달렸다. 어른들의 서
릿발 같은 꾸중을 각오하고 멀쩡한 양은 냄비나 숟가락을 들고
달리는 용감한 아이도 있었다.

(중략)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그 옛날의 옛장수는
없다. 옛장수의 가위 소리도 없고, 그 소리에 넋을 놓고 뛰어가
던 아이들도 없다. 이어폰만 귀에 꽂으면 옛장수의 단조로운 가
위 소리보다 더 빠르고 변화가 심한 매력적인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옛가락보다 더 달콤한 군것질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다.

누군가 우스개처럼 말했던 게 생각난다. 옛장수는 외국 자본에
기대지 않고 순수하게 민족 자본으로 성장했던 마지막 기업이였
다고. 그렇지 않더라도 옛장수, 녀마주이, 고물상이라는 이름들
앞에 우리는 좀 더 겸손해져야 하지 않을까. 그들은 이 땅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일 먼저 실천했던 선각자들이라고 말이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삼천리 금수강산은 삼천리 유리 파편 강산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안 그런가?

- 안도현, 「옛장수 생각」 -

16.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문답 구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을 대비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상황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는 구강이 암행어사로 겨울에 북관을 지나면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쓴 가사이다. 어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백성들의 피폐한 삶과 지방 관리들의 폭정을 대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감상이 드러나 있다. 이는 위정자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인간에 대한 구강의 연민의 정이 표출된 것이다.

- ① ‘차마 보지 못할너라’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백성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 작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 ② ‘안접하게 하여줍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백성들을 도우려는 위정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
- ③ ‘도망한 자 친구환을 있는 자에 물리니’에서 불합리하게 부과된 세금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어.
- ④ ‘급히 급히 넘어가자 이 백성들 살려보세’에서 암행어사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어.
- ⑤ ‘백성 없는 곡식 바다 그 무엇에 쓰려하노’에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지방 관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

18.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수> : 돌아온 고향에서 변해 버린 인사(人事)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 ② <2수> : 강산을 즐기느라 임금에게 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4수> : 세속의 어지러운 소식을 모른 채하며 살고 싶은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5수> :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 자연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8수> : 인생이 덧없다고 느끼기에 산수(山水)와 노래를 즐기며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다)에서 글쓴이는 ‘옛장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옛장수를 기다리던 모습, 옛장수가 마을에 나타났을 때의 반응, 옛으로 바뀌 먹었던 다양한 물건 등 옛장수와 관련된 추억을 언급하고, 이제는 사라져 버린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① 아이들이 옛장수를 기다리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애타는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옛장수를 향해 정신없이 뛰어가던 아이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 ③ 아이들이 옛으로 바뀌 먹기 위해 들고 갔던 다양한 물건을 언급하고 있다.
- ④ 옛장수가 사라진 이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존 세대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⑤ 옛장수가 했던 일에 가치를 부여하여 그 의미를 독자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20.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현재 상황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는 화자의 소리이고, ㉣은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화자의 소리이다.
- ② ㉠은 현실에 대한 울분을 드러내는 백성들의 소리이고, ㉣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옛장수의 소리이다.
- ③ ㉡은 주변 경관을 감상하며 즐기는 소리이고, ㉢은 주변의 분위기를 분주하게 변화시키는 소리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이다.
- ⑤ ㉡과 ㉢은 모두 긍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으로의 반전을 유발하는 소리이다.

[21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크라테스 이후의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현실 세계를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로 간주하고,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현실 너머의 세계를 참된 세계라고 여겼다. 그들은 삶의 목적이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 가치의 추구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성적 사유를 통해 이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유 방식이었다. 바로 이 점에 반기를 든 철학자가 니체이다.

니체에 따르면, 삶은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며, 가치 평가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가치는 삶에 유용한가, 즉 그것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그런데 전통 형이상학은 ㉠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 하였다. 이에 따르면 삶의 본능적 욕망은 억압되어야 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삶은 개선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태도는 ‘도덕적 선’에 부합하지 않는,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들을 충족하려는 태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 결국 현실적인 삶 자체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니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삶을 초월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전도된 사유 방식에 전적으로 반대하였다.

니체는 전통 형이상학의 도덕 가치를 좇으며 ‘노예’로 살아가는 대신 각자가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즉 ㉡ ‘힘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자신 내면의 힘과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하나의 ‘힘에의 의지’가 다른 ‘힘에의 의지’를 이겨도 또 다른 ‘힘에의 의지’가 수시로 나타나므로, 이것은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이다. 니체는 ‘힘에의 의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할 때 현재의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니체에 따르면, 삶을 긍정하고 상승시키고자 하는 ‘강자’들은 삶에 유용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각각의 삶이 자신의 상승을 위해 ‘힘에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합하기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아곤(Agon)’, 즉 경쟁이다. 이것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더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기에 아곤의 궁극적 목적은 경쟁자의 제압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 있다.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는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선의의 파트너가 된다.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클수록 상대가 강하다는 뜻이며, 이때 고통은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물론 강자들 사이에서도 힘의 차이에 따르는 위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때의 위계는 일방적 계급 질서가 아니다. 승패는 존재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좀 더 성장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서로 인정하므로,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의 힘의 위계는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형태로 드러난다. 즉, 니체의 아곤은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니체는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삶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강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를 옹호한 니체의 철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1.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수행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응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	학생의 응답	
		예	아니요
①	니체 철학의 등장 배경을 전통 형이상학과 관련지어 제시하였는가?	✓	
②	니체 철학과 전통 형이상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는가?		✓
③	니체 철학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드러내었는가?		✓
④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는가?	✓	
⑤	니체 철학이 지닌 의의를 밝히며 마무리하였는가?	✓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현실 세계와 별개로 참된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 ②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이성적 사유를 제시하였다.
- ③ 니체는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태도도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 ④ 니체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을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⑤ 니체는 삶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삶을 긍정하는 태도라고 여겼다.

23. 니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별적 삶을 바탕으로 절대적 가치가 지닌 유용성을 판단하였다.
- ② 개별적 삶에 절대적 가치를 실현하여 삶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 ③ 절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현실적 욕구들을 바탕으로 개별적 삶을 규정하였다.
- ④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삶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고 보았다.
- ⑤ 가치 평가의 기준이어야 할 삶을 삶 외부의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24.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쇼펜하우어는 살고자 하는 맹목적 욕망, 즉 ㉡ ‘삶에의 의지’가 인간의 행위와 인식을 지배한다고 보았다.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을 느끼지만, 이것은 금방 권태로 변하여 또 다른 욕망을 낳는다. 이 의지는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원히 고통을 발생시키며, 이 의지가 격렬할수록 고통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예술과 명상, 금욕을 통해 이를 다스려야 하며,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이 의지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언하였다.

- ① 니체는 ㉠을 창조적인 삶을 이끄는 힘으로, 쇼펜하우어는 ㉡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힘으로 보았다.
- ② 니체는 ㉠을 더 강해지고자 하는 내적 동기로, 쇼펜하우어는 ㉡를 더 행복해지게 만드는 외적 동기로 보았다.
- ③ 니체는 ㉠을 타인의 존재와 무관한 욕망으로, 쇼펜하우어는 ㉡를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로 한 욕망으로 보았다.
- ④ 니체는 ㉠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쇼펜하우어는 ㉡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니체는 ㉠을 최소한으로 가짐으로써, 쇼펜하우어는 ㉡를 최대한으로 추구함으로써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25.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기록 경기인 △△종목에서 늘 1,2위를 다투는 ‘갑’과 ‘을’의 라이벌전이 ○○올림픽에서 펼쳐졌다. 먼저 출전한 ‘을’이 신기록을 달성하자 관중들이 열광하였는데, 이때 ‘을’은 뒤이어 출전하는 ‘갑’을 위해 관중에게 자제를 요청하였다. 결국 경기는 ‘을’ 1위, ‘갑’ 2위로 종료되었다.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목에 건 ‘갑’과 ‘을’은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으며,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경기장을 돌며 관중들에게 답례하였다.

- ① ‘늘 1,2위를 다투는’ ‘갑’과 ‘을’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제공하고 성장을 돕는, 선의의 파트너로 볼 수 있군.
- ② ‘○○올림픽’은 각자의 삶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갑’과 ‘을’의 힘에 의지가 맞서 겨루는 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신기록’을 세운 뒤 ‘갑’의 경기를 배려하는 ‘을’의 모습은 동등한 조건에서 힘의 크기를 비교하여 상대의 능력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경기 종료 후 ‘갑’에게 ‘은메달’이, ‘을’에게 ‘금메달’이 주어진 것은 힘의 차이에 따른 위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갑’과 ‘을’이 ‘서로에게 박수를 보’낸 모습은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에 상호 존중의 형태로 힘의 위계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군.

[26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어머니는 마름집 하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자,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마름집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막내아들이 격분하여 마름집을 툰다. 이후 막내아들은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머니에게 복역 중이라는 편지가 전달된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도짓소* 내어 준 것을 팔아, 그래도 제간에는 세상 물정에 귀가 뚫렸다 하는 작은아들 이현이를 광주로 보냈던 것이었는데, 거길 갔다 온 그놈의 말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독립투사였던 사람을 암살한 범인이기 때문에 징역을 산다더라고 하던 것이었다. 한데, 또 그렇게도 답답할 수가 없던 것은, 언제까지 산다더냐 해도, 언제 나오게 될 것이라더냐 하여도, 이현이 대꾸를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기만 하던 것이었다.

“먼 일이란가, 먼 일이여?”

그게 무슨 벼락맞을 소리냐고, 우리 막동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그건 옆의 사람이 지어 붙여 뒤집어씌운 것일 거라고 펄펄 뛰어 보는 것도 마냥 쓸데없는 일이었고, 이때부터, 열흘 걸러 한 번씩 허위허위 보성으로 달려가서 기차를 타고, 광주 땅에 내리기가 바쁘게 동명동 형무소 면회 창구에 면회 신청을 하여, 두 손을 묶이어나오는 푸르스름한 죄수복의 막동이, 그놈의 허영고 부석부석한 얼굴을 보면서, 쓰라린 마음을 달래곤 했었다. 그러면서, 그놈에게 늙은 어머니는 누가 너에게 그런 죄를 씌웠느냐고 울며불며 물어보고 했던 것이었지만, 그놈은 멀거니 이 어미의 얼굴을 건너다볼 뿐, 입을 꼭 다물고만 있곤 할 뿐이던 것이었다. 그놈의 그런 태도를 미루어, 그놈의 심중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어떤 사정인가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지만, 그걸 무슨 말로 어떻게 해서 비춰 주게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늙은 어머니는, 그 막동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모두 소갈 머리 없는 자기 때문이라 하며, 혀를 깨물고 각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지 않은 게 아니었지만, 마룻장 위에서 울골골 떨고 있는 그 막동이를 그대로 둔 채 눈을 감을 수란 도저히 없는 일이므로, 일일마다 마냥 답답하고 기막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놈한테 내리 덮인 죄, 그 죄를 어떻게 벗겨 줄 길이란 없는 일이니, 이젠 그놈이 벗어 나오는 날까지, 이렇게 면회를 가면 얼굴이라도 보도록 해 주는 것만도 고맙게 여기면서, 부지런히 면회를 다니는 길밖에 없다 했다.

한데, 그 면회나 자주 다닐 수 있었으면 하련마는, 그놈이 집에 있을 때 품들어 받아들인 쌀 판 돈으로 마련한 송아지 도짓소로 준 것, 그것을 팔아 짓혀 면회를 다니며 써 버린 뒤로는, 왔다 갔다 할 차비 이천 원에 먹고 잘 돈 오백 원, 면회하면서 그놈에게 먹고 마시게 할 돈 천 원..... 하여 모두 삼천오백 원 돈, 그걸 마련 못해 주겠다고 양탈을 하는 큰아들들의 소행들이 못내 섭섭하고 노여워, 늙은 어머니는 그 저수지 둑 밑에 주저앉아 다리를 쪽 뺏고 통곡이라도 해 버렸으면 시원할 것 같은 심사를 억누르고, 부지런히 활갯짓을 하면서 오른손에 든 지팡이를 옮겨 놓는 것이었다.

(중략)

‘아니, 어쩐 일이란가?’

맨 먼저 접수를 시켰으니 응당

“윤 소님 씨!”

하고 늙은 어머니의 이름을 더 먼저 불러들여야 할 일인데도, 이미 늙은 어머니보다 훨씬 늦게 접수한 사람들을 무려 여섯 사람이나 면회장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으면서, 그 늙은 어머니를 불러 넣어 주지는 않는 것이었다.

‘몇 땀시 그란단가?’

혹시 그놈이 아파서 못 나오는 것은 아닌가, 아니, 어디 다른 델 보내 버렸을까, 하며 조급해진 늙은 어머니의 생각에, 꼭 열 두 번째의 사람을 면회장 안으로 불러들였다고 느껴지는 순간,

“윤 소남 씨!”

하는 소리가 들려, 휘이, 이제야 데리고 나왔는가 보다 하며, 난로 위의 뜨거운 쇠고깃국 냄비를 뜨거운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덥씩 들어 안고 면회장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입구를 지키던 교도관이

“할머니!”

하고 늙은 어머니를 세우더니, 손에 든 ㉠종이쪽지를 옆에 서 있는 다른 교도관에게 보이며 무슨 말인가를 속닥거렸다. 그러더니 눈살을 잔뜩 찌푸리며 쓴 입맛을 다시고,

“이막동이가 아들이요?”

하고 물었다.

“야.”

가슴이 후들거리고, 기침이 목구멍 너머에서 자꾸 근질거리며 튀어나오려는 것을 이를 악물어 억누르는데,

“이막동말고 아들 또 있소?”

하고 다시 물었다. 둘이나 있다고 하자, 그 교도관은 옆에 있는 교도관하고 말을 주고받은 뒤 고개를 주억거리다가,

“이막동 씨 어제 옮겨 갔어요.”

하는 것이었다.

“야?”

무슨 뜻이냐고 묻자, 교도관이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을 다시 한번 일그러뜨리고, 문밖으로 멀리 갔다는 손짓을 곁들여, 통명스런 목소리로

“목포로 갔단 말이요, 어제. 빨리 그리로 가 보시오.”

늙은 어머니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목포로 왕게라우?”

교도관은 고개를 깊이 주억거리려 주고, 잠시 동안 천장을 떨거니 쳐다보다가 다음 사람을 불렀다.

“어따 어메, 어째사 쓰꼬!”

하고 허둥허둥 나서다가, 쿨룩쿨룩 터져 나오는 기침 때문에 배창자를 긁어 쥐느라고 쪼그려 앉은 늙은 어머니의 품 속에서 우유병 하나가 떨어져 하얗게 박살이 나고 있었는데, 옆에 섰던 한 남자가 안되었다는 듯 끌끌 혀를 차는 것이, 그 늙은 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을 까닭 없던 것이었다.

— 한승원, 「어머니」 —

* 도깃소: 한 해 동안 곡식을 얼마씩 내기로 하고 빌려 부리는 소.

2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미래의 일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인물 간 성격의 대비를 통해 사건이 반전되는 양상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⑤ 외부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아들의 감옥살이를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는 어머니의 한과 자식을 향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어머니는 몸도 쇠약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아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 그렇기에 고대하던 아들과의 만남이 무산된 비극적 상황은 어머니의 한이 심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 ① ‘막동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며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장면을 통해 아들의 처지에 대한 어머니의 자책감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죄를 어떻게 벗겨 줄 길이’ 없지만 ‘얼굴이라도 보도록 해 주는 것만도 고맙게 여기’는 장면을 통해 어머니가 자식을 보러 가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삼천오백 원’을 마련해 주지 않은 ‘큰아들들의 소행’을 ‘노여워’하는 장면을 통해 어머니가 경제적 어려움을 자식들 탓으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쇠고깃국 냄비’의 뜨거움도 ‘의식하지 못한 채’ 들고 가는 장면을 통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어머니의 품’에 있던 ‘우유병’이 깨지는 장면을 통해 비극적 상황에 처한 어머니의 절망감을 짐작할 수 있겠군.

28.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머니’는 ㉠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아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 ② ‘어머니’는 ㉠ 때문에 면회가 늦어진 것을 알고 ‘교도관’에게 항의했다.
- ③ ‘교도관’들은 ㉠으로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 ④ ‘교도관’들은 ㉠을 ‘어머니’에게 보여 주며 ‘아들’과 아는 사이임을 드러내었다.
- ⑤ ‘교도관’들은 ㉠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달하기를 불편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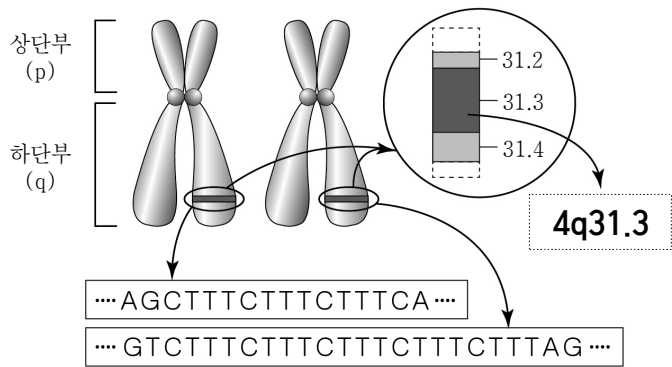
[29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수사에서 ‘DNA 분석’은 범인을 ㉠ 추정하거나 피해자의 신분 등을 확인할 때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DNA 분석이란 혈흔이나 모발 같은 샘플로부터 DNA를 ㉡ 채취하여 동일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재 ‘STR 분석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STR(Short tandem repeat)’은 ‘짧은 연쇄 반복’이라는 뜻으로, ‘STR 분석법’은 DNA의 특정 구간에서 짧은 염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부분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STR 분석법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상동 염색체, DNA, 염기 서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체세포의 핵에는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염색체가 2개씩 쌍으로 존재하는데, 이들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 한다. 상동 염색체는 부계(父系)와 모계(母系)에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는다. 이 상동 염색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DNA이다. DNA는 아데닌(A), 구아닌(G), 사이토신(C), 타이민(T)이라는 네 종류의 염기 약 30억 개로 구성되는데, 이 염기들이 ‘AGGCTA...’와 같은 형태로 이어져 있다. 이것을 DNA의 염기 서열이라고 한다.

상동 염색체 내 특정 위치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해 보면 짧은 염기 서열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정 구간이 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반복되는 횟수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STR 분석법은 바로 이 점에 ㉢ 착안하여 샘플 간 비교를 통해 동일한 여부를 확인한다.

STR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하려는 염색체 내의 위치가 ㉣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그 위치를 ‘좌위’라고 한다.



‘갑’이라는 사람의 어떤 좌위가 <그림>과 같이 ‘4q31.3’일 때, 이 좌위의 ‘4’는 염색체 번호를, ‘q’는 염색체 하단부를, ‘31.3’은 염색대* 번호를 가리킨다. 이 좌위에는 염기 서열 ‘CTTT’가 반복되고 있는데, 왼쪽 염색체에서는 세 번, 오른쪽 염색체에서는 다섯 번 반복되고 있다. 이 경우 분석된 결과를 왼쪽부터 표시하여 ‘3-5’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갑’은 4번 염색체 하단부(q)의 31.3번 염색대 위치에 ‘CTTT’가 ‘3-5’인 유전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동 염색체의 특정 위치에 나타나는 STR을 분석하여 ‘3-5’와 같은 결괏값으로 표기하는 것을 ‘DNA 프로파일’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20개의 좌위를 표준으로 하여 과학수사에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다. 비교 샘플의 DNA 프로파일 20개 좌위에서 모두 동일하다면, 비교 샘플이 동일인의 것일 확률이 100%에 가깝다. 이런 이유로 STR 분석법은 과학수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좌위의 개수도 늘어나 더 ㉤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 염색대: 염색체를 염색할 때 발생하는 띠 모양.

29.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마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 종류가 다르다.
- ② 상동 염색체는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 한 쌍으로 존재한다.
- ③ STR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염색체의 개수를 파악해야 한다.
- ④ 20개의 표준 좌위에서는 염기 서열의 STR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STR 분석법은 DNA에 있는 30억 개 염기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30. 밑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DNA에는 염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하지 않아 STR 분석법에서 사용하기 힘든 구간도 존재하겠군.
- ②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서는 부계와 모계에서 받은 염색체의 염색대 번호가 서로 다르겠군.
- ③ 동일인에서 채취한 서로 다른 샘플에서는 같은 좌위라도 염기 서열의 반복 횟수가 다르겠군.
- ④ STR 분석법은 네 종류의 염기가 모두 반복되는 특정 구간을 분석 대상으로 하겠군.
- ⑤ 국가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좌위가 없어 분석 결과를 공유하기 힘들겠군.

3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보석 가게에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손톱을 발견하고 DNA를 분석하였다. 다음 날 목격자의 제보에 따라 ‘을’을 용의자로 지목한 후, ‘을’의 모발로 DNA 분석을 의뢰하였다.

<범인 손톱의 DNA 프로파일과 좌위 정보>

DNA 프로파일		좌위 정보	
좌위	결괏값	위치	반복되는 염기 서열
㉠	5-3	5q33.1	AGAT
㉡	6-6	13q31.1	TATC
㉢	2-7	5q23.2	AGAT
⋮	⋮	⋮	⋮
㉤	8-4	7q21.11	GATA

(단, 좌위는 임의로 4개의 정보만 제시함.)

- ① 범인은 7번 염색체의 하단부 특정 염색대에 ‘GATA’ 배열이 네 번 반복되는 DNA를 가지고 있군.
- ② 범인은 부계와 모계에서 받은 염색체의 STR 반복 횟수가 동일하게 나오는 좌위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군.
- ③ ‘을’의 ‘DNA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을’의 5번 염색체가 두 번 이상 분석에 활용되겠군.
- ④ ‘을’이 범인이라면 ㉠과 ㉢에서 모계에서 받은 염색체의 ‘AGAT’ 반복 횟수의 합이 12보다 클 수 없겠군.
- ⑤ ‘을’의 분석 결과가 ㉡에서 ‘4-8’, ㉤에서 ‘8-4’로 나온다면 ㉤의 결괏값만으로도 ‘을’을 범인으로 확정할 수 있겠군.

32.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
- ② ㉡: 연구나 조사에 필요한 것을 찾거나 받아서 얻음.
- ③ ㉢: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잡음.
- ④ ㉣: 특별히 지정함.
- ⑤ ㉤: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여 빈틈이 없고 자세함.

[33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완전경쟁시장’은 많은 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이 없어 누구나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말한다. 이에 반해 ㉡ ‘독점시장’은 비슷한 대체제가 없는 재화를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극단적인 시장으로, 자원의 희소성이나 기술적 우월성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구조를 말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이때 기업은 ‘가격수용자’로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시장가격으로 원하는 물량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얻게 되는 한계수입은 일정하며, 가격과 거래량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반면에 독점시장에서 기업은 ‘가격결정자’로서 시장가격을 조정할 힘을 가지며, 이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독점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더 적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진다. 그렇다면,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할까?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줄이면 시장가격이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시장가격이 하락한다. 가령 독점기업이 생산한 제품 한 단위를 100만 원에 판매할 경우,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려 두 단위를 판매한다면 가격을 이전보다 낮춰야 다 팔 수 있다. 이때의 가격을 90만 원이라 한다면 총수입은 180만 원이 되고,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했을 때 추가로 얻는 한계수입은 80만 원이 된다. 즉,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면 종전 판매 가격도 함께 낮춰야 하기 때문에,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낮다. 이때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한계수입과 더불어 한

[A] 계비용을 고려한다. 한계비용은 제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을 말한다. 만일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반대의 경우 생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후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요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를 고려하여 최적 생산량을 판매할 수 있는 최고가격을 찾아낸다. 즉, 해당 생산량에서 수요자가 최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최종 시장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독점시장에서 기업은 시장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수요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법이라고도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독과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 등 경쟁 제한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는 ‘폐해규제주의’를 ㉢ 취하고 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독점적 이익을 과도하게 얻어내는 ‘착취 남용’과 현실적·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방해 남용’으로 ㉣ 나눌 수 있다. 먼저, 착취 남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변경하거나, 출고량 조절로 시장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를 ㉢ 말한다. 다음으로 방해 남용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여 경쟁 제한의 폐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약탈적 가격 설정’과 ‘배타조건부 거래’가 있다. 약탈적 가격 설정은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매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타조건부 거래는 다른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일방적, 강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여 결정한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한 제한하고 있다. 흔히 ‘카르텔’이라고 ㉠ 불리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일 업종의 복수 사업자가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입찰 내용 등을 합의하여 형성하는 독과점 형태를 말한다. 이때 합의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담합*은 사업자 간에 은밀하게 ㉡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경쟁 제한적인 합의만 있다면, 비록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명하거나,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담합: 서로 의논해서 합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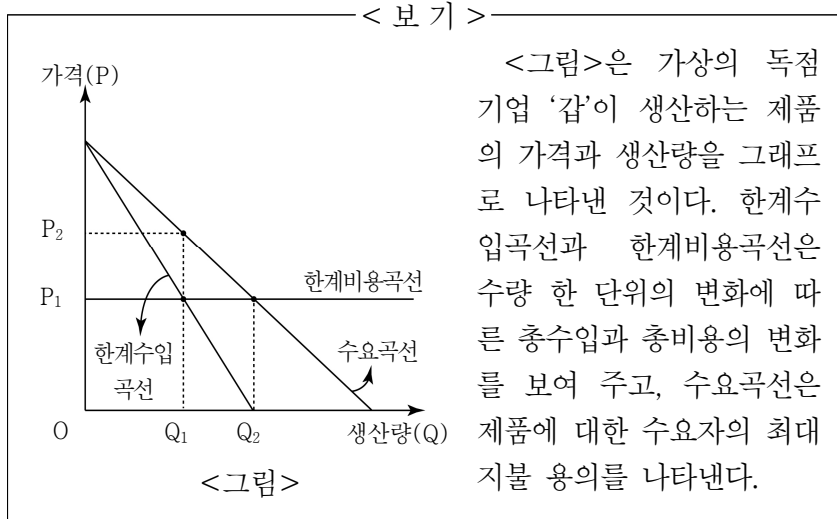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장구조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시장에서 독점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고, (나)는 부당한 독점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를 서술하고 있다.
- ③ (가)는 균등한 소득 분배를 위한 경제학적 대책을 제안하고 있고, (나)는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는 독점기업의 이윤 추구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나)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들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독점이 시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있고, (나)는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

34.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개별 기업은 가격수용자로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다.
- ② ㉡에서 기업이 제품의 생산량을 늘려 나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낮아진다.
- ③ ㉡에서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독점기업이 판매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낮춰야 한다.
- ④ ㉠에는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에 비해 개별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자유롭다.
- ⑤ ㉠에는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므로, ㉡보다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크다.

35.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갑'은 이윤을 최대 높이기 위한 최적 생산량 수준을,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Q₁ 지점으로 결정할 것이다.
- ② '갑'이 생산량을 Q₁에서 Q₂로 늘리면서 제품의 가격을 P₂에서 P₁로 낮춰 공급하더라도, 독점으로 얻고 있던 이윤은 유지될 것이다.
- ③ '갑'의 생산량이 Q₁보다 적으면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므로, 이윤을 높이려면 생산량을 Q₁ 수준까지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 ④ '갑'의 생산량이 Q₁이고 공급할 제품의 가격이 P₂라면, 해당 기업이 제품을 판매할 때 얻게 되는 단위당 이윤은 P₂-P₁이 될 것이다.
- ⑤ '갑'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요자의 최대 지불 용의 수준을 고려하여 공급할 제품의 최종 시장가격을 P₁이 아닌 P₂로 결정할 것이다.

36. (가)와 (나)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독점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 설정하면, 한계비용보다 지불 용의가 낮은 수요자들의 (㉡)가 일어나 결과적으로 상호 이득이 될 수 있었던 거래의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 진입 제한을 막고, 기업 간 경쟁을 (㉢)하여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자 한다.

- | | | | |
|---|----|-------|----|
| | ㉠ | ㉡ | ㉢ |
| ① | 높게 | 소비 감소 | 촉진 |
| ② | 높게 | 소비 감소 | 억제 |
| ③ | 높게 | 소비 증가 | 억제 |
| ④ | 낮게 | 소비 감소 | 억제 |
| ⑤ | 낮게 | 소비 증가 | 촉진 |

37.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사례 1] 반도체 판매 1위인 A사는 국내 PC 제조업체들에게 경쟁업체 B사의 반도체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상호 합의를 거쳐 반도체 대금으로 받은 금액 일부를 되돌려주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사례 2] 국내 건설업체 C사는 신축 공사 입찰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건설업체 D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D사의 입찰 예정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입찰 가격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D사가 최종 사업체로 선정되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조치를 명하였다.

- ① [사례 1]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통해 경쟁사업자인 B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배제하였다고 보았겠군.
- ② [사례 1]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와 국내 PC 제조업체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방해 남용인 배타조건부 거래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겠군.
- ③ [사례 2]에서 C사와 D사의 합의가 명시적인 형태가 아니라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경쟁 제한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될 수 있겠군.
- ④ [사례 2]에서 C사가 만약 D사와의 입찰 담합을 약속하고도 실제 입찰 과정에서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없었던 것이 되겠군.
- ⑤ 사업자의 독과점 추구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사례 1]과 [사례 2]에서 확인되는 A사와 C사의 행위는 경쟁 제한의 폐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되겠군.

38.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그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 ② ㉡: 나는 그녀와 슬픔을 나누는 친근한 사이이다.
- ③ ㉢: 그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 ④ ㉣: 반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렸다.
- ⑤ ㉣: 교향악단은 최정상급의 연주자들로 이루어졌다.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중국 명나라 소 승상의 아들 소 학사는 황주 자사로 부임하던 중 해적인 서준의 공격을 받아, 임신한 아내 이씨와 헤어진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씨가 낳은 아들은 길에 버려진 후 서준의 부하에게 구조되어 서준의 아들 '계도'로 양육된다. 장성한 계도는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소 학사의 어머니가 사는 집에 우연히 들른다.

부인이 아들 형제를 생각하고 슬픈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여 잠자리에 누웠다가 비몽사몽간에 승상이 들어와 부인을 대하여 말하기를,

“오늘 부인의 손자가 올 것이니 보소서.”

라고 하므로 놀라 깨어 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부인이 더욱 마음이 편안하던 차에 비자*가 하는 말을 들으니 어린 듯 취한 듯 반가우면서도 괴이하여 곧 외당에 나가 문틈으로 공자의 상을 보았는데 영락없는 학사였다. 부인이 생각하기를,

‘꿈에 승상이 하시던 말이 맞도다.’

라고 하면서 공자의 얼굴을 보고 더욱 학사 생각이 나서 안으로 들어가 노비에게 명령하여 외당에 온 공자에게 말로 전갈하라고 하였다.

㉠ “남녀가 다르나 내 나이가 칠십이고 공자를 대하여 물을 말이 있으므로 염치없기를 무릅쓰고 청하노니, 늙은이의 말을 허물치 말고 중당으로 행보하소서.”라고 하라.”

시비가 외당에 나가 부인의 말씀을 공자에게 전하니 계도가 부인의 전할 말씀을 듣고 노비를 따라 중당에 이르러 부인에게 절하고 물었다.

“무슨 말씀을 묻고자 하시나이까?”

부인이 공자에게 말하였다.

“누구 집 공자며, 어디를 가느냐?”

계도가 대답하였다.

[A] “소자는 황천탑에 사는 서준의 아들 계도인데, 황성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던 차 마침 부인 댁 문전을 지나가다가 잠깐 쉬어가고자 하였습니다. 부인께옵서 청하옵시기로 내당에 들어왔사오니 미안하고 황송하여이다.”

부인이 공자의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나는 소 승상의 부인일러니, 승상은 돌아가시고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큰아들 학사 운이 황주 자사로 내려간 지 여러 해 동안 소식이 영 끊어졌다네. 둘째 아들 위가 제 형을 찾아 나간 지 또한 여러 해에 역시 소식이 없으므로,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나날이 서산에 지는 해와 동쪽 바다에 뜬 달을 대하여 아들 형제를 생각하고 집에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네. ㉡ 이러던 차에 오늘 공자를 보매 나의 아들 학사의 외모와 같기로 청하였으니 노인의 망령됨을 허물치 말라.”

라고 하고는 슬프게 통곡하였다. 계도가 부인의 말씀을 듣고 또한 눈물을 흘리니 부인이 계도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네 얼굴을 보니 아들 학사의 모양이구나.”

라고 하면서 슬픔을 그치지 않으므로 계도가 미안하게 여겨 부인에게 아뢰었다.

“세상에 혹 같은 사람도 있사온즉 너무 슬퍼 마옵소서.”

하고 위로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내 집 뒤뜰에 천도화 나무가 하나 있으되, 본래 나의 시아버지께서 도학이 비범하시어 신선과 매일 즐기시다가 신선에게 얻기를 청하여 심은 나무라네. 증험하는* 일이 많아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려 하면 엄동설한이라도 꽃과 잎이 피었다가 사흘 후에 꽃이 지고,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없으면 봄이 되어 화창한 시절이라도 꽃과 잎이 피지 않는데, 오늘은 천도화가 피었으니 이상하도다. 만약 삼 일 후 꽃이 지면 이는 필시 공자를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 계도가 듣고 부인에 아뢰었다.

“그러하오면 한번 구경하사이다.”

부인이 계도를 데리고 후원에 올라가 천도화를 보이니 과연 꽃이 피었으므로, 계도가 보고 신기하게 여겨 말하였다.

㉢ “내 이곳에서 머물러 증험을 보리라.”

라고 하고는 외당에 머물렀다가 삼 일 후에 다시 후원에 올라가 보니 낙화가 지는 것이었다. 계도가 보고 의심하였다.

‘월봉산에서 노인의 말씀이, 정성이 지극하면 잃어버린 부모를 찾으리라고 하시고, 또 이곳에 오면 반가운 일을 보리라고 하시더니 과연 이상하고 수상하도다. 내가 서준에게 길러 짐을 생각하면 정녕 서준이가 나의 부친인데, 월봉산 노인의 말씀과 이곳 부인의 말씀이며 천도화를 보니 이상하도다.’

슬픈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서 행장을 열어 거문고를 내어 줄을 골라 한 곡조를 탔다. 맑고 맑은 소리가 공중에 솟으니, 이때 부인이 슬픔에 싸여 있던 차에 거문고 소리가 남을 듣고 괴이하여 자세히 들은즉 예전에 학사가 가지고 놀던 거문고 소리였다. 이에 부인이 급히 외당에 나아가 보니, 공자가 거문고를 타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과연 학사의 거문고이므로 부인이 달려들어 거문고를 붙들고 대성통곡하면서 말하기를,

“이 거문고는 어디에서 났느냐? 이 거문고는 나의 승상이 손수 만들어 사랑하시다가 돌아가신 후 아들 학사가 황주로 내려갈 때 가지고 간 기물인데, ㉣ 학사는 오지 않고 거문고는 집을 찾아왔으니 너의 임자는 어디 가고 너만 홀로 왔느냐.”

라고 하며 계속 통곡하였다. 계도가 기가 막혀 생각하기를,

‘부인이 나를 보고 학사 같다고 하며 의심하는 차에 공교롭게 거문고를 보고 또 붙들고 슬퍼하시니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에 있으리오!’

라고 하고는 부인에게 여쭙었다.

“이 거문고는 소생의 집에 대대로 전해 오는 기물이로소이다. 부인은 정신을 진정하시고 자세히 보옵소서.”
부인이 눈물을 거두고 대답하였다.

[B] “내 집의 기물을 어찌 모르리오. 이 거문고는 승상이 살아 계실 적에 서촉 지방의 사신에게 부탁하여 동정호 절벽강 산에서 수천 년 묵은 벽오동을 구하여 만들었으며, 소리가 기이하여 슬픈 사람이 타면 소리가 슬프게 나고 아무라도 심정이 편안한 사람이 타면 소리가 웅장하고 씩씩하게 나네. 이러하므로 신기한 거문고라 일컬었음이니 내 어찌 모르리오.”

계도가 부인에게 아뢰었다.
㉠ “이 거문고는 진실로 소생의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 오는 기물이오니 조금도 염려 마옵소서.”

라고 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그러하면 승상이 만드실 때 거문고 복판에 ‘청성고’라고 써서 새겼으니 공자가 자세히 보라.”

라고 하시므로 계도가 보니 복판에 ‘청성고’라고 새겨 있었다.
- 작자 미상, 「소학사전」 -

* 비자: 여자 중.
* 증험하다: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을 하다.

3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 승상의 아버지는 신선에게 얻은 나무를 뒤뜰에 심었다.
- ② 계도는 부인에게 거문고에 새겨진 글자를 확인하자고 제안하였다.
- ③ 부인은 비자의 말을 들은 후에 몰래 계도의 생김새를 살펴보았다.
- ④ 소 학사의 동생이 형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난 후 여러 해가 지났다.
- ⑤ 계도는 반가운 일을 볼 것이라고 한 월봉산 노인의 말을 부인 집 후원에서 떠올렸다.

40.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남녀 간의 윤리 규범을 인정하면서도 계도를 만나 보고 싶어하는 부인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② ㉡: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계도에 대한 부인의 서운함이 드러난다.
- ③ ㉠: 부인이 예고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계도의 생각이 드러난다.
- ④ ㉡: 학사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계도에 대한 부인의 반감이 드러난다.
- ⑤ ㉡: 자기 가문의 기물을 아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부인에 대한 계도의 분노가 드러난다.

4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심정을 직접 드러내어 상대의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 ② [A]는 [B]와 달리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제시하여 상대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③ [B]는 [A]와 달리 사물의 내력을 근거로 들어 상대의 말을 반박하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상대의 특정한 행동을 언급하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소설은 가족이 외부의 시련으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주인공의 아들이 적대자에게 양육되거나 상대가 혈육임을 인물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설정은 서사적 긴장감을 유발한다. 또한 등장인물이 앞일을 예언하거나 신이한 자연물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는 장면은 독자들의 흥미를 극대화한다.

- ① 부인의 꿈에서 승상이 ‘손자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인과 아들이 손자를 통해 만나게 됨을 예언한 것이겠군.
- ② 부인의 ‘큰아들’이 ‘여러 해 동안 소식이 영 끊어진 것’에서 가족이 헤어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슬픔을 그치지 않’는 부인에게 ‘같은 사람도 있’다고 ‘위로하’는 것에서 계도는 부인이 혈육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계도가 부인 집에 들른 날에 ‘천도화’가 피었다가 ‘삼 일 후에’ 진 것은 그와 부인의 관계에 대한 신이한 자연물의 암시로 볼 수 있겠군.
- ⑤ 계도가 친아버지의 적대자인 ‘서준에게 길러’졌다는 데서 서사적 긴장감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겠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세 끼 밥벌이 고단할 때면 이봐
수시로 늘어나는 **현 조율**이나 하자구
우린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어차피 **한 악기**에 정박한 두 현
내가 저 위태로운 낙엽들의 **잎맥** 소리를 내면
어이, 가장 낮은 **흡의** 소리를 내줘
내가 팽팽히 조여진 **비명을 노래**할 테니
어이, 가장 따뜻한 두엄의 **속삭임**으로 받아줘
세상과 화음 할 수 없을 때 우리
마주 앉아 **내공에 힘쓰**자구
내공이 깊을수록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지
모든 현들은
어미집 같은 **한없는 구멍** 속에서
제 소리를 일군다지
그 구멍 속에서 **마음 놓고** 운다지
- 정끝별, 「현 위의 인생」 -

(나)

한때 나는 **뿌리의 신도**였지만
이제는 뿌리보다 **즐거**를 믿는 편이다

즐기보다는 **가**지를,
가지보다는 **가**지에 매달린 **잎**을,
잎보다는 **하**염없이 지는 **꽃잎**을 믿는 편이다

희박해진다는 것
언제라도 **훅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뿌리로부터 떨어질수록
가지 끝의 **이파리**가 위태롭게 **파**닥이고
당신에게로 가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당신은 **뿌리로부터 달**아나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뿌리로부터 **달**아나려는 정신의 **행**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허공의 손을 잡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

뿌리 대신 **빨**이라는 말은 **어**떤가

가늘고 **뽀**족해지는 감각의 **촉**수를 밀어 올리면
감히 **바**람을 **찢**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소의 **빨**처럼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뿌리로부터 온 존재**들,
그러나 **뿌리로부터 부**단히 **도**망치는 **발**걸음들
오늘의 **일**용할 **잎**과 **꽃**이
천천히 **시**들고 **마**침내 **입**을 **다**무는 **시**간

한때 나는 **뿌리**의 신도였지만
이미 **허공**에서 **길**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
- 나희덕, 「뿌리로부터」 -

4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명사로 시를 마무리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청유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색채어를 통해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4.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현’을 ‘조율’하면서 고단함을 달래려 하겠군.
- ② 화자는 청자를 ‘한 악기’에서 함께 소리를 내는 동반자로 인식하겠군.
- ③ 화자는 청자의 ‘속삭임’을 통해 ‘비명을 노래’하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겠군.
- ④ 화자가 ‘내공에 힘쓰’려고 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겠군.
- ⑤ 화자는 ‘구멍 속’이 ‘마음 놓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겠군.

4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나)의 화자는 뿌리에 의지하는 삶을 살다가 심경에 변화가 생겨 뿌리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이는 화자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존재의 근원인 뿌리로부터 벗어날수록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역설적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① ‘뿌리의 신도’였다가 ‘꽃잎을 믿는’ 것에서 화자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훅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뿌리로부터 떨어질수록’ 오히려 ‘길이 조금씩 보’인다는 것에서 역설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어딘가를 향해’ 간다는 것에서 화자는 불안정함을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존재하려 함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뿌리로부터 온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화자가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